

〈대 담〉

최송화 교수 정년기념대담

일 시 : 2006. 8. 15.(금) 18:00~20:00

장 소 : 팔레스호텔 2층 다방

대담자 : 박정훈(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이원우(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박정훈 :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40여년을 재직하시고 이제 2006년 8월말로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정년을 맞이하는 소감이나 감회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송화 : 박정훈 교수, 이원우 교수, 공사 간에 바쁘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감이라고 하면, 40여년의 교수생활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큰 영광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년은 저에게 있어서 일생동안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성취로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이원우 : 우선 부드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장 과정 중에서 기억나는 일, 그리고 특히 법대에 진학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화 : 잘 아시겠지만 저는 1941년생으로서 광복 이후 건국, 전쟁, 정치적 혼란, 경제적 빈곤 등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성장과 발전, 민주화의 과정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종합적 압축성장의 역동적인 역사와 함께 더불어 살아왔지요.

제가 진로를 위해 고민을 한 것은 고등학교 1, 2학년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때 두각을 나타내었던 미술실력이 나의 소질인가 하여 미술이나 건축을 전공해 볼까, 당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전쟁기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던 말씀에 따라 사관학교로 갈까, 어떤 길이 국가에 기여하는 길일까 고민을 하면서 폐허가 된 국토의 복구, 전쟁을 넘어 통일,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 등을 생각하다가 법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사회가 어려운 시기에 법과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동안에 4.19와 5.16이라는 한국사회의 큰 변화를 다 겪으셨는데 당시의 대학생활은 어떠셨나요?

최승화 : 맞습니다. 3.15 부정 선거에 이어 대학교 2학년이던 1960년에 4.19, 3학년이던 1961년에 5.16이라는 한국사회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학 1, 2학년을 “부정선거와 선거정의”, “불의항거와 민주이념”, “정의와 자유의 기술로서의 법”, “정의와 자유의 기술학으로서의 법학”의 시대라고 한다면, 3학년은 “자유정부와 군사정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 부패척결과 가난극복”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과 함께 우리 헌법 전문에 천명되어 있는 4.19민주이념의 역사적 사실을 법학도로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4.19세대지요. 또한 정상적인 법질서는 물론 이와 길항관계에 있는 군사혁명기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지요. 이때는 교양과 법학입문단계를 지나 법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서구에서 100년 내지 2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을 1-2년 사이에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해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공

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법과대학 공법학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원우 : 그럼 선생님께서는 공법학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최송화 : 공법학회의 주역의 한사람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대학교의 경우 범 대학교 차원에서 거교적으로 전국 대학생 모의 국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경우 대학의 한 학회에 불과한 조그만 학회가 단독으로 전국 대학생 모의국회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은 한태연, 박일경, 김도창, 김철수 교수님이셨지요. 그 때 전국 대학생 토론회의 주제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와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였습니다. 한마디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박정훈 : 그러면 학자의 길로 가시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송화 : 앞서 말씀드렸습디만, 어떤 길이 국가에 기여하는 길인가 라는 법학 진로선택의 고민, 4.19, 5.16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법학도로서 한 체험, 즉 역사적 체험의 공법적 문제의식으로의 발전과 사명감, 그리고 공법학회 지도교수님들의 학문적·인간적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도창 선생님께서 공법학자의 길로 인도 해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대 4학년이 되어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김도창 선생님께서 “군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어서 “자네 공부를 할 생각은 없는가? 지금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던 뒤 2학기말쯤 되었을 때, 다시 “최군,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에 들어오도록 하게. 곧 대학원 입학시험이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셨지요. 대학원에 들어간 뒤에는, 물론 나에게 수강이라든지 공부의 방향은 제한 없이 열려있었지만, 자연히 나의 선택은 김도창 선생님의 지도 하에 공법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원우 : 학부 시절에 특별히 감명 깊게 들었던 강의나 인상 깊게 읽으신 책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송화 : 교육제도의 탓이기는 하겠지만, 1학년 첫 학기에 들었던 안병욱 선생님의 철학 강의는 대학 교복을 입었으나 지적으로는 아직 벗지 못 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복을 벗게 하고 지성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강의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지성사, 지성인의 문화적 안목에 대한 깨우침을 주셨지요. 그리고 입학 후 바로 들었던 법학 강의들, 헌법, 법철학 등 모든 법학 강의들은 어떻게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세대에게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병국 선생님의 민법강의는 개강에서부터 종강까지 민법 제2조를 강의 하셨는데, 말하자면 그 방대한 민법강의를 “신의성실”이라는 한 개념으로 다 하시는 것은 법학강의의 진수로서 참으로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들의 강의는 실로 학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법학 과목의 담당교수님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경제학이나 정치학, 체육 교수님들도 그 시기 법학도의 교양과 지적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책으로는 『논어』, 『맹자』,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플라톤의 『국가론』 등이 있습니다.

박정훈 : 서울대 법대교수로 취임하시게 된 배경이나 당시 마음가짐 또는 교수가 되시면서 지키기로 한 원칙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최송화 : 교수·연구자로서 성실, 정직, 구도자적 정진, 성심으로 봉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삶 같은 것들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이원우 :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재직하셨는데요.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처음 강의시간이라든지, 어떤 과목을 강의하셨었는지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보람 있었던 일이라든지, 일화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최송화 : 대학교수로서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것은 명지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헌법을 강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법강의는 법대 조교신분으로 상과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1967년인가, 명지대학에서의 헌법강의가 나오서는 처녀강의였는데, 첫 강의를 하던 날 강의를 시작한지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더 이상 강의 할 것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하면 상과대학에서 한 행정법 강의는 3시간을

속강하는 강의인데, 언제인가 아침 9시에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얼마 지났을까 학생들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해서 무슨 일인가하고 봤더니, 그게 12시가 넘었어요. 강의 초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명지대학의 헌법강의나 상과대학의 행정법 강의나 두 경우 모두 공부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할 얘기가 없고, 잘 모르면 그냥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과대학에서 한 강의는 행정법이었지만, 법철학을 담당하시던 전원배 교수께서 갑자기 타계하셔서 전 교수께서 담당하시던 법률사상사 강의를 몇 년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강의했다기보다는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사상사를 강의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보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 리포트를 쓸 사람은 리포트를 쓰되 2주간에 걸쳐서 리포트 제목과 내용을 나와 협의해서 리포트를 내면 그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이 리포트를 쓰겠다고 했는데, “우리 속담에 나타나는 법정신, 법사상”이란 주제도 있었고, “개화기의 한국법사상”이라는 주제도 제시했습니다. 그때 받은 리포트 중 “개화기 유길준의 법사상”이라는 리포트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제출한 수강생에게 “내가 정년퇴임할 때까지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지금은 교수가 된 그 수강생이 정년퇴임을 할 때 그분의 정년퇴임 기념으로 그것을 돌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의를 위하여 유스티니아누스의 책을 우리 도서관에서 대출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일본어 번역본도 있더군요. 그리고 휴고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의 일본어 번역판 상, 중, 하도 있습니다. 그때 경성제국대학의 일본 학자들이 서구 법학을 받아들이는 깊이나 자세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재직기간 중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일생 잊지 못 할 학은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중요한 보직을 여러 번 맡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학문적인 업적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보직과 연구·교육 그 사이에 어떤 조정이라든지 조화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승화 : 아까 빠뜨린 부분을 같이 얘기한다면,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행정관례의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1968년경 아시아재단 지원으로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행정법판례집의 편집에 참여했고 이어서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도창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행정과학연구소의 한국행정판례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1976년 행정판례집 (상), (중), (하)를 편집 발간한 것은 공동편집자로서 행정판례연구자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대한 관례를 하나하나 분석, 검토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관례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행정법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대학의 여러 보직을 경험했습니다만, 행정법이라고 하는 전공분야가 다른 전공분야보다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그런 보직과 연관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우 : 부총장하시면서 학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직을 하시면서 보직과 연관된 분야를 연구주제로 채택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승화 : 그렇게 본다면 교수의 정치활동의 법적 문제 그리고 교수의 윤리 문제도 그런 예입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제도와는 별도로 교수윤리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 문제 되었을 때 외국의 20여개 대학의 성희롱에 관련된 학칙과 제도를 조사·연구하게 되었고, 그 뒤에 서울대학교의 관련 규정과 제도 및 기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전공과 연관이 되었다고 하겠지요.

또 하나는 학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대학의 자유, 대학의 자율과 함께 대학의 법치주의에 대한 요청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내의 여러 법적 문제를 실효적으로 심사 검토하는 기구의 하나로서 법률상담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원우 : 선생님께서는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자

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대학의 자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느끼신 것이라든지 앞으로 대학 자치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현 상황에서의 대학의 자치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다고 보시는지 진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송화 : 서울대학교법, 국립대학교특별회계법, 교육개혁법제 등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자율적인 규범의 정립과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평의원회의 의장을 맡았을 때 교수평의원회의의 결기구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종래 심의기구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교수평의원회를 이른바 “대학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한편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은 특히 재정적인 자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의 대학이 몇 대학이나 포함되느냐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세계 100대 대학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나 100대 대학에 속하는 일본의 대학과 아시아지역의 대학들의 여건을 우리나라 대학의 여건과 비교해 보면, 재정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의 지원과 사회, 국민으로부터의 지원 외에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는 대학 학칙의 인가제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이론적 기초가 되었으며, 대학의 자치규범 제정권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 오늘날 우리 행정법학의 문제점이라든지, 후학들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최송화 : 몇 년 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법학 내지 한국공법학도 인류공영이라는 보다 고원한 목표를 지향하여 국경을 초월한 공법학의 관심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이 펼쳐지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21세기 새로운 인권론의 전개에 호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경쟁에 관한 실천적 학문으로서 공법학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타당한 해결을 제시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화사회, 인권, 환경, 부패방지, 공법상 권리구제제도, 토지 등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 정치개혁, 지방자치, 언론법제, 경제규제법제 등의 영역도 당연히 공법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론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공법학은 세계화의 흐름에 의연히 대처하면서도 그의 정체성을 꾸준히 확립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자신의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과 아울러 선진 공법학의 성과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이해가 매우 긴요하다고 봅니다. 역사학분야에서 우리의 역사를 재평가하듯이 우리 공법 백년사를 정립하고 재평가하는 일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에 한국사회의 성숙함과 더불어 한국공법학자들의 새로운 연구의 지평이 아름답게 전개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원우 : 선생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신 것을 돌이켜보시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신 분야나 이론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최승화 : 그동안의 연구를 돌이켜보면,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행정의 절차적 정의와 투명성, 공익의 법문제화, 법과 정책, 미국행정법, 북한법제, 판례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론적 기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회장으로서 앞으로 판례연구를 통하여 행정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 사제지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최승화 : 사랑과 존경의 사이라고 생각하며, 부자지간과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공동연구자, 동료교수라 할 수 있으며, 함께 살아 갈 동학의 인생연구 동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우 :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취미나 특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최송화 : 운동을 좋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운동은 건강하지 못했던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to do best” 最善과 “fair play” 公正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운동장 위애가 아니라 룰(rule)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땅에 선을 그음으로써 운동경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운동의 룰과 심판관을 보며 법의 의미와 법관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바둑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시절 부모님께서 바둑을 두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1996년에는 서울대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아울러 서울대와 동경대의 바둑교류 20년을 기념하는 여러 사업이 있었습니다. “烏鷺의 饗宴-서울대東京大 바둑交流 20년.”이라는 기념기보집도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는데 권두사에서 저는 서울대바둑부 지도교수로서 勝固欣然 敗亦可喜 (이기는 것도 흐뭇한 일이지만 지는 것 또한 기쁨이라) 라는 옛 한시로 축하를 하였지요.

부총장 재직시절 40여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의 수행으로 바쁘고 힘들 때는 바둑 한 수 두러 나간다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이제 바둑 끝났다는 생각으로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 마지막으로 정년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송화 : 정년이라는 성취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받은 은혜와 배려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못 다한 공부와 봉사를 계속해야지요.